

優秀發明紹介

<第231~234回>

이달의 優秀發明

<發明獎勵部>

<第231回, 11月 6日>

『火傷 및 凍傷膏의 製造方法』

—消炎 鎮痛作用 등 24時間持續—

이 發明은 傷處에 대한 消炎, 鎮痛, 殺菌, 老廢物排泄 및 充血의 藥理作用을 하는 綜合的인 製劑인 「火傷 및 凍傷膏의 製造方法」(發明者: 李培永; 서울 강남구 마천동 277)에 관한 것으로서 發明者에 의해 登錄(8. 25.)되었다.

從來 사용하여온 藥物은 보통 1度 정도의 火傷 處에 대한 局所의 緩和劑로서 脂肪油, 라노린, 와세린, 글리세린 또는 징크油 등의 單軟膏의 製法으로 된 油劑를 사용하였거나 상처의 2次感染을 막기 위한 方法으로서 와세린커시 또는 프르신커시등을 상처에 덮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종래의 製法에 의한 약물은 1도가량의 가벼운 상처에서 오는 약간의 통증 및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2도 이상의 상처 또는 2차 감염 등에 의한 상처에는 별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 發明은 파라핀硬膏, 레진, 沈降炭酸칼슘, 流動파라핀을 混合하여 自動減速調節믹사에 의해 38°C~42°C로 軟化시켜 제조하기 때문에 皮膚患部에 바른 후 24時間 지나면 깨끗이 떨어지고 皮膚의 毛細血管을 擴大하여 迅速한 吸收力을 지니며 역시 모세혈관을 자극하여 소염, 진통, 살균, 노폐물배설, 충혈방지 등의 強力한 藥理作用이 24시간 持續되도록 處理하였다.

<特許登錄 第6789號>

<第232回, 11月 13日>

『粉筆表面의 가루를 固定시키는 方法』

—周邊汚染防止 · 保健衛生에 寄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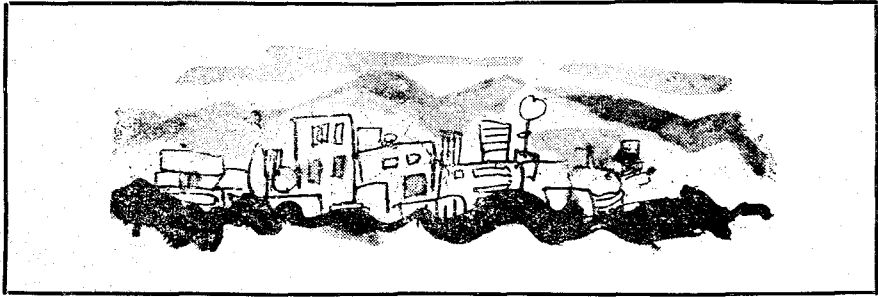
이 發明은 敎壇에서 漆板에 粉筆글씨를 쓸 때 분필가루가 손이나 옷에 묻지 않도록 분필표면의 가루를 固定시키는 方法(發明者: 김경동 서울 城東區九直洞 23-18)에 관한 것으로서 發明者에 의해 登錄(10. 18.)됨으로써 특히 一線敎師들의 保健衛生管理에 寄與하게 되었다.

現在 市販되고 있는 粉筆을 사용할 때에는 분필가루가 날려 손이나 옷 그리고 주변이 분필가루로 汚染될 뿐만 아니라 呼吸時에 人體의 목으로 넘어가는 등 衛生的으로도 몹시 害로왔다.

이와 같은 問題들을 解決하고자 이 發明에서는 粉筆使用時 분필가루가 손이나 옷에 묻지 않고 또 바람에 날려 呼吸障礙를 일으키지 않도록 분필표면을 加工處理하는 方法을 考案한 바 그 內容은 폴리비닐알콜 0.1~5%, 天然樹脂젤라틴 0.5~10%, 디에틸렌글리콜 0.01~0.2%에 澱粉을 넣은 水溶液에 公知의 粉筆을 25~80°C에서 浸漬시키는 것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한편 硬化劑로서는 디에틸렌글리콜* 테레프탈라테히드,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등을 사용하는 데 분필표면처리가 너무 강하면 글씨 써지지 않으며 너무 무르면 표면이 벗겨져서 표면처리효과가 없게 되므로 표면처리에 신중한 주의가 따라야 한다.

<特許登錄 第7027號>



〈第233回, 11月 20日〉

『폴리에스테르擬麻絲의 製造方法』

—天然麻織素材에 近似—

이 發明은 麻纖維와 같은 멧과 觸感을 나타내는 폴리에스테르필라먼트絲의 새로운 製造方法(發明者: 손해운, 서울 龍山區 西部二村洞 300-160)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자에 의해 登錄(11. 6.)되었다.

종래에는 폴리에스테르纖維에 麻纖維와 같은 觸感이나 外觀을 갖도록하기 위하여 폴리에스테르絲를 알카리로 處理하여 減量시키는 方法이나 普通의 폴리에스테르絲와 收縮性이 다른 素材의 실을 合攪加工하는 方法등 여러가지 技術이 應用되어 왔으나 視覺의 效果는 얻을수 있으나 觸感에서는 麻와 같이 같갈하면서 시원한 觸感을 주지 못하였다.

이런 缺陷을 解決하기 위하여 이 발명에서는 熱融着式方法에 있어서 열응착부가 비교적 均一하게 分散될수 있도록 하는 새롭고 效果의인 方法을 具體的으로 提供할 目的으로 端面積이 相違한 2種 또는 그 이상의 노즐(nozzle)을 여러개 交互配設한 紡絲다이스트로부터 폴리에스테르 멀티 필라먼트를 방사하되 단면적이 가장 작은 필라먼트를 撚伸시키되 標準撚伸 필라먼트의 軟化點(240°C) 이하이면서 가장 未撚伸된 필라먼트의 軟化點이상의 溫度(200°C)에서 加熱處理함으로써 未撚伸部分의 필라먼트가 연신된 부분의 필라먼트에 부분적으로 熱融着되도록하여 所定의 擬麻絲를 뽑아내게 하였다.

〈特許登錄 第7161號〉

〈第234回, 11月 27日〉

『人蔘粕을 利用한 모기향』

—原料의 輸入代替效果도 期待—

이 發明은 알콜이나 물을 溶媒로해서 人蔘을 抽出한 후 副産物로 얻어진 殘留粕을 利用하여 모기향을 製造하는 方法(發明者: 홍성표)으로서 株式會社 高麗人蔘製藥社(代表: 홍성표)에 의해 登錄(11. 10.)되었다.

從來의 모기향은 여러가지 化學藥品을 混合하여 만들었으나 發明에서는 溶媒인 알콜이나 물로서 人蔘을 抽出한 후 副産物로 얻어진 人蔘粕을 澱粉糖化酵素와 蛋白質分解酵素를 生成하는 微生物을 利用하여 溶媒로 抽出된 殘留粕속의 澱粉質, 蛋白質 및 그밖의 不溶性分을 微生物酵素로서 再次 抽出하여 纖維素가 增加된 잔유박을 여러가지 複合性分등으로 構成된 人蔘잎과 混合 利用하여 效果의인 모기향을 얻을수 있게 하였다.

이와같이 人蔘粕과 人蔘잎을 利用해서 만든 이 發明의 모기향은 종래의 모기향과 比較하여 燃燒過程에서 發生하는 人體에 有害한 가스 즉 CO와 CO₂가스含量이 顯著히 減少되고 燃소과정에서 인삼의 향기가 發生하기 때문에 惡臭을 줄임으로써 不快感이 없을 뿐만 아니라 外國으로부터의 原資材輸入 없이 國內에서 이를 代替할 수 있으므로 輸入代替效果까지 얻을수 있는 經濟的 利點도 바랄 수 있다.

〈特許登錄 第7185號〉